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3년 4월 3일 수요일 제890호

학생자치기구 1억2천여만원 예산안 가결

단과대 예산도 1억5천여만원 삭감 없이 통과 '기숙사 의무식' 등 13개 항 총장에 공개질의

중앙자치기구 상반기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총여학생회를 시작으로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순으로 열렸다.

28일 열린 상반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총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13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납부 현황 △2013학년도 상반기 1~3월 결산안 및 예산안 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또 중앙자치기구, 각 단과대학별 예산안은 모두 가결됐다. 중앙자치기구는 총 1억2840만5000원, 각 단과대학 및 야간강좌부에 총 1억5693만9000원의 학생행사보조경

비가 승인됐다.

앞서 27일 열린 '좋은일만' 총학생회 상반기 정기총운영위원회에서는 정족수 102명 중 98명이 참석해 96.08%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3학년도 학생 행사 보조경비 분배내역 △총학생회 공약 사항 보고 및 사업방향 설명 △총학생회 1~3월 결산안 및 예산안 보고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보고 등을 다뤘다.

총학생회는 아라대동제의 무대설치, 흥보비용, 연예인선의 등으로 1억 1000만원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 독

도방문 행사비로 2000만원, 4·3 행사 진행비로 550만원을 책정했다. 총학생회는 앞으로 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근로자의 날 행사, 스승의 날 행사, 아라대동제, 총학생회 간부학교, 농촌 봉사활동, 독도탐방 등이 예정돼 있다.

대학현안 13개에 대한 공개질의서도 발표했다. 기숙사 의무식 제도, 제2도서관 방음시설, 사법대 임용고시 지원방안 등 학내 굵직한 현안 대해 총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각 단과대학별 불편을 수렴해 사회과학대학의 원어민 수업 학점 반영 문제, 사법대 임용고시의 실질적 지원 방안, 생명자원과학대학 신축건물, 해양과학대학 학과방문 문제 등도 질문 내용에 포함돼 있다.

유병선 총학생회장은 "이번 총운영위원회를 통해 그 동안의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며 "내일을 위한 일만아리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처럼 동행하고 귀 기울이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상반기 확대 운영위원회가 열려 △총여학생회 공약 사항 보고 및 사업방향 설명 △총여학생회 1~3월 결산안 및 상반기 예산안 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됐다.

박지혜 총여학생회장은 "학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수렴해 공약들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자리를 빌려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4·3 아픔 되새기는 추모행사 전개

29일 4·3 유적지 순례 행사 학생회관에 분향소 설치도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 간부와 제주대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4·3 65주년을 앞두고 4·3 유적지 순례행사에 다녀왔다.

이들은 이날 제주시 화북동 곤을동, 조천읍 북촌리 너분승이, 선흘리 낙선동,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을 탐방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민의 아픈 역사인 4·3에 대해 바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이들은 4·3평화공원에서 분향, 헌화와 함께 4000여개의 비석 앞에 조화 놓는 등의 봉사활동도 했다.

행사에는 총대의원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인문대학, 경상대학,



학생들이 학생회관 1층에 마련된 4·3희생자 분향소에서 향을 피우고 있다.

공과대학, 야간강좌부, 사회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사법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예술디자인대학 학생 670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총학생회는 지난달 27일부터 학생회관 1층에 4·3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4일 경상대학서 개최

'찾아가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가 오는 4일 오후 3시부터 경상대학 대강당에서 열린다.

외교부와 취업전략본부가 공동주

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해외인턴십,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의하면 된다.

비자, 일자리, 어학연수, 안전 정보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는 학생은 수업이 공결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전략본부(전화 754-2309)로 문의하면 된다.

'사이버 정보보호' 1위 전국 405개 대학 중 교육부 평가에서

제주대가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2년 교육·연구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매우 우수(A등급) 수준인 94.3점을 받아 전국 405개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교육·연구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17개 시도 교육청, 405개 대학, 8개 소속기관, 41개 연구·공공기관이다. 국립대학의 평균 점수는 78.5점이었다.

이번 2012년 정보보호 수준진단은 △관리적 보호 △기술·물리적 보호 △접근 및 운영관리 △자산관리 △인적보안 △보안사고 대응체계 등 6개 항목과 85개 지표를 평가했다.

정보통신원은 보안통합관제시스템

팀을 운영함으로써 학내 정보보호 인식 제고, 사이버침해사고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등의 분야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제주대는 지난해 12월 정보보호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이 분야에서 꾸준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학생회관 앞 한라터에서 'We Love' 프로젝트 청찬 × 사랑 × 행복 × 더하기 실천으로 '더 큰 제주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3. 3. 29(금) 제주대학교

긍정의 힘으로 '소통하는 대학' 만든다

대학인 칭찬문화 확산 결의 봉사·기부 등 프로그램 실천

제주대(총장 허향진)는 지난달 29일 학생회관 앞 한라터에서 'We Love' 프로젝트 실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허향진 총장과 유병선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교직원, 재학생 등 670여명이 참석했다. 제민일보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청찬 꼽하기, 사랑 나누기, 행복 더하기'를 연호하며 청찬 실천으로 더 큰 제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이 캠페인은 먼저 학생 개개인

이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학교집단으로 확대해 행복한 대학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다양한 지역 기여 활동을 펼침으로써 긍정의 에너지를 제주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 실천하기 위해 6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우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기별 공모를 통해 팀당 지도교수 1명 포함 최소 8명 이상인 10팀을 선정,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봉사의 저변을 확대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공학문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추진한

다. 간호와 관련한 호스피스 활동이나 미술의 벽화 그리기, 주택 보수, 교육과 관련해서 중국어·수학 학습봉사 등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공모해 12개 팀을 선정·지원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애자들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주기 위한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기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공부 외에도 학생 동아리와 연계해 노래·댄스·악기·연극 등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재능기부도 이어진다.

이 밖에도 '대학 사랑나누기 활동'에 대한 칭찬 댓글 달기, 도내 언론에 보도된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한 대학 구성원간 칭찬 및 격려하기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천운동도 벌인다.

학생생활관 입주 학생 선발지침 개정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선발지침'이 지난달 28일 일부 개정됐다.

이는 2010년 12월 6일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것이다. 개정 내용은 제5조 우선선발과 관련된 규정이다. 5조 3항 '학군사관후보생은 우선 선발한다', 5조 4항 '의학전문대학원생은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기숙사에 먼저 배정한 후 적용한다'가 신설됐다.

오승남(학생생활관) 실무관은 "전문대학원과 학군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선발지침에 넣은 것"이라며 "전문대학원이나 학군단 학생은 입주에 별 어려움이 없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말산업육성 인력양성센터 신축공사 기공식

경기장·마사동 등 조성

말산업육성 전문인력양성센터 신축공사 기공식이 허향진 총장 대학 관계자와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대학 목장 부지에서 열렸다.

육성 전문인력양성센터 신축공사 기공식

2013. 3. 29 제주대학교



지난달 29일 대학 목장부지에서 말산업육성 전문인력양성센터 신축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시상내역

부문	편수	내 역
금상	1	상장 및 상금 300,000원
은상	1	상장 및 상금 200,000원
동상	1	상장 및 상금 100,000원
입선	20	상장 및 상품권 20,000원
계		23

입상작 발표

• 발표일시: 2013년 4월 중

• 제주대학교박물관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 시상 및 전시·출판: 추후 일정

• 입상작 인쇄물 발간 시 수상자 무료 증정

일정별 행사계획 3/30(토) - 4/5(금)

구분	시간	행사	장소
전시	제주대학교박물관 09:00-18:00	제주의 바다, 땅, 사람, 옛 문서	2층 상설전시실
	제일제주인센터 09:00-18:00	제일제주인의 삶	1층 제일제주인실

부대행사

구분	일시	행사 내용	장소	참여 대상
참여 체험	3.30(토) 16:00	민속 옷놀이 경기 (팀별 대항) · 아와 간담회	제주대학교박물관 3층 아와테라스	2013년도 역사문화박물관 대학 시민강좌 수강생
기 타	3.30(토)-3.31(일) 11:00-17:00	벚꽃 카페	제주대학교박물관 정문 진입로	제한없음

행사문의 ▶ 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실: ☎ 064-☎ 754-2242

공모목적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주최하는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거니는 제주대학교

'벗(朋)길 나들이' 사진공모전은 '제주왕벚꽃축제'와 관련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친근한 제주대학교의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박물관 홍보에 목적을 둔다.

● 공모에 선정된 작품은 박물관 전시자료로 활용하며, 사진전을 통해 제주대학교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재학생 및 교직원의 애교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공모분야

● 아름다운 제주대학교의 왕벚꽃을 소재로 한 모든 사진

● 공모주제 및 활동 대상

<

사설

4·3연구기관 설립을 다시 촉구함

벚꽃이 화사한 가운데 어김없이 4·3을 맞는다. 어느덧 65주년이 되었다. 4월 3일이 국가주념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밖근데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4·3의 열기는 변함없이 뜨겁다. 위령제, 토론회, 심포지엄,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으로 그래왔듯이, 우리 대학교에서도 총학생회가 백두관에 학동분향소 설치와 더불어 유적지 순례 행사를 가졌으며, 학과 학생회 단위로 위령제 참석, 다큐멘터리 상영, 전시회·공연 관람 등의 행사가 마련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몇몇 행사가 전부다. 우리 대학교에서 주관한다고 내세울 수 있는 4·3 행사라고 할 만한 게 보이지 않는다. 4·3을 연구하는 교수들도 있고 관련 강좌가 사이버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변화한 학술행사조차 열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에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지역거점대학'을 내세우는 국립대학인 우리대학교 교정에서는 아카데믹한 4·3 행사를 눈을 씻고 찾으려도 찾을 수 없다. 제주는 물론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4·3 문제를 지역거점대학이 외면하고 있다. 어찌다 이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4·3 문제를 전담하여 연구할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평화연구소·탐라문화연구소 등

의 관련 연구소와 사학과·사회학과·정치외교학과 등 관련 학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연구소와 학과에서의 4·3 문제는 부분적 관심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전담할 연구기관이 대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제주대신문에서는 지난 11월 28일자 신문의 사설을 통해 '대학에 4·3연구 기관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남대학교의 경우 이미 1996년에 '5·18연구소'를 설립하여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논문집·연구총서·자료집·교재 발간, 기념관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고 있음을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전남대가 광주민주화운동 16년 만에 5·18연구소를 출범시켰음을 감안하면, 우리대학교가 제주4·3사건 65주년이 되었어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지금부터라도 4·3 연구기관 설립 작업을 시작하자. '4·3연구센터'와 같은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서둘러 구체화하자. 이 기관을 중심으로 4·3 관련 전임교수와 인력을 채용하고, 책임 있는 조사·연구·교육을 진행해 하자. 그래서 '지역사회에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지역거점대학'이 구호만이 아닌 현실로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새 도서관 건립은 신중하게 논의해야

21세기는 문화와 환경의 시대라고 한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삶의 축복에 의한 결과로서의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특히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 즉 문화기반시설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문화기반시설이란 문화의 기능 또는 행위 패턴을 담을 수 있는 시각적 형태의 조형물로 구성된 일종의 영역(area)을 지칭하는 말이며 도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은 크게 공공도서관,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기타문화시설(공연시설, 문화의집, 문화원 등)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은 도시민들의 밀접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학의 중심적 기능이 교육과 연구이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의 대학은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생산적인 연구와 교육 서비스제공과 문화적 가치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도서관은 2011년 현재 106만 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제주대학교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여온 대표적인 시설임에는 틀림없으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이 그러하듯 대학 도서관은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평소에는 각종 시험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러한 현상의 원

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도서관의 공간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책을 열람하는 넓은 공간과 서고, 관리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학의 도서관은 다양한 기능적 전환의 요구되고 있고 공간의 형태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사용자인 대학생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의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로서의 학생들 스스로가 도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과 의지,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새로운 대학도서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다. 건축부지의 위치도 결정되면서 건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자 대학의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기쁘고 기대되는 소식들이다.

그러나 몇 가지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으며 대학당국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사회의 대학도서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능과 공간이 적절한지, 학생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성이 고려되었는지, 대학의 문화기반시설이자 대학의 상징적 아이콘으로서 도서관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를 내다보고 심도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지 대학당국에서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 전용휴식공간은 왜 없나



학생회관 2층에 마련된 여학생 휴게실.

“남학생 역차별 우려” 타 대학 전용 휴게실 설치

“우리학교에 왜 남학생 휴게실은 없는거지? 남학생도 학교에서 잠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

면 좋겠어요”

한 남학생은 학교에 남학생들이 휴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제주대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실은 단 한곳. 바로 여학생 휴게실뿐이다.

일부 남학생들은 전용휴게실이 없어 역차별을 받는다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인문대학의 한 학생은 “정말로 양성평등을 이야기한다면 남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종여학생회를 비롯해 학생회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나”며 “다른 대학처럼 하루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종여학생회장은 “남학생은 학과방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여학생은 학과 방 등에서 쉬기 힘들어 예전부터 종여학생회에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학생 휴게실 설치의 목소리는 제주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커지고 있다. 여학생 휴게실이 많은 가운데 남학생들도 남학생 휴게실을 지어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혹자들은 이 점을 들어 대학기에

남성인권찾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일부 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인권신장, 복지증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여학생회에서 남학생의 복지도 배려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에 경기대에는 독특한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후보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과대학 학생회장에 여성인 이다애씨가 여학생 휴게실에 밀려 마련되지 않았던 남학생들만의 휴게공간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것이다. 공과대학의 특성상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무려 9대1에 육박하지만 정작 남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거의 전무하다 시피한 상황이어서 오히려 여학생인 이씨가 회장으로 당선되는데 주효했다.

또 그 외에도 경희대, 인천대 등에서도 이러한 지적에 따라 남학생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명지 기자



봄꽃소식은 언제나 아라캠퍼스를 흥분시킨다. 화사한 자태를 뿐만 아니라 꽃망울을 터트린 가운데 1일 야외음악당 잔디밭에 학생들이 삼삼오오 앉아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명지 기자

교육봉사 모임 미담장학회 입학식 개최

제주대 학생이 멘토로 나서 평등교육사회 실현 목표로

교육봉사 모임인 제주대 미담장학회(회장 김민주 식품영양학과 2)가 지난달 30일 학생회관 2층 시청각실에서 입학식을 열었다.

미담장학회 출범식을 겸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중·고등학생(멘티), 대학생(멘토), 학부모 등 60여 명과 김인호 경북대 미담장학회 회장이 참석해 제주대 미담장학회의 본격적인 활동 돌입을 축하했다.

제주대 미담장학회는 지역 중·고교 학생들에게 국가,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개강은 오는 6일이며 13주 동안 매주 주말에 4시간



제주대 미담장학회(회장 김민주 식품영양학과 2)가 지난달 30일 학생회관 2층 시청각실에서 입학식을 열었다.

씩 수업을 하게 된다.

한편 미담장학회는 평등교육사회 실현을 목표로 무료 교육을 실천하는 교과부 인증 국가공인 교육기부 단체

다. 현재 제주대 이외에도 경북대, 부산대, 유니스트(UNIST), 전남대, 카이스트(KAIST) 등이 참여하고 있다.

는 환경교실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팀장 김예지(제주대학교 사법대학

부설고 2) 학생은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정두언·김성곤 의원)이

주최한 ‘2013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에서 △저탄소 블로그 운영 △장애청

소년 참여·실천 노력 △제주지역의

생태보전 활동 등으로 학생부문 우수

상을 수상했다.

팀장 김예지(제주대학교 사법대학

부설고 2) 학생은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정두언·김성곤 의원)이

주최한 ‘2013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에서 △저탄소 블로그 운영 △장애청

소년 참여·실천 노력 △제주지역의

생태보전 활동 등으로 학생부문 우수

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환경동아리 ‘푸른나래’ 상금 기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김상규)의 청소년 환경동아리 ‘푸른나래’가 지난달 19일 (사)미래지식성장포럼이 주최한 ‘제4회 청소년 지원봉사활동 동아리지원 및 수기공모전’에서 수상한 단체우수상 상금 30만원 전액을 ‘행복나눔지역아동센

터’에 기부했다. 환경동아리 ‘푸른나래’는 2010년 결성돼 녹색생활실천을 생활화하고 환경활동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실천을 표방하는 청소년 환경동아리다. 지난해부터 ‘행복나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찾아가

초등 체육영재 모집 체육영재센터서 10일까지

체육영재센터(센터장 양명환)가 오는 10일까지 2013년도 체육영재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현재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없는 도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4학년 학생이다.

모집 종목 및 인원은 육상·체조·수영 분야 11명이다.

1·2차 체력 및 종목별 운동능력 측정과 학부모 면접을 통해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체육영재(초등학생)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체육영재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영재발굴시스템(KOSTASS)를 활용해 육상·체조·수영종목의 학생을 선발, 육성하고 있다.

체육영재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 3년동안 33명의 체육영재가 배출했다.

2012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육상 종목 제주도 대표 및 체육중학교에 진학한 영재를 배출하기도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영재센터(전화 754-2270, 3580)와 누리집 (<http://jnuest.or.kr>)으로 하면 된다.

무역학과 정규강좌로 김상오 시장 등 특강 나서

무역학과(학과장 이용완)가 지난 달 28일 경상대학 2호관 0152강의실에서 김상오 제주시장을 초청, ‘FTA시대의 제주경제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김상오 시장은 특강에서 제주경제의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와 학생들의 졸업 이후 진출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사람들

송재호 교수

미래발전연구원장에 선출



송재호(관광개발학과) 교수 가 최근 한국미래발전연구장에 선임됐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체육영재(초등학생)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체육영재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영재발굴시스템(KOSTASS)를 활용해 육상·체조·수영종목의 학생을 선발, 육성하고 있다.

체육영재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 3년동안 33명의 체육영재가 배출했다.

2012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육상 종목 제주도 대표 및 체육중학교에 진학한 영재를 배출하기도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영재센터(전화 754-2270, 3580)와 누리집 (<http://jnuest.or.kr>)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영재센터(전화 754-2270, 3580)와 누리집 (<http://jnuest.or.kr>)으로 하면 된다.

김재규 행정학과 동문

‘제공회’ 신임회장 선출

김재규(56·국민권익위원회 상

FTA와 제주경제’ 강좌 마련

주강현 석좌교수 강연

오후 2시 아라뮤즈홀

주강현(탐라문
화연구소) 석좌교
수가 오는 3일 오후
2시 아라뮤즈홀에



서 열리는 제주대
문화광장에서 ‘해
양문화와 21세기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제주대문화광장에서는 제주
도를 드넓은 바다로 진출한 역동적
인 섬으로 바라보는 ‘해양중심적 사
관’을 바탕으로 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기초교육원(전화
754-2035)

제주특별자치
도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는 지난
달 25일 이사회
를 개최해 신임
본부장에 이사들
이 만장일치로
고자명씨를 선출했다.

고자명 신임 본부장은 수의학
과 대학원 동물자원학과를 졸업
했다. 고자명 중소기업센터 본부
장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연구소
를 시작으로 축산협동조합 전
무,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고자명 신임
본부장의 임기는 2016년 3월 25일까
지로 3년이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
영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대신문 61기 수습기자 모집

“청춘을 가장 멋있게 불사르는 방법”

-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장학금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원고료(기사 성과에 따라), 취재 수수료(매월) 지급
- 현직 기자들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실제 언론사에서 활용하는 편집 시스템을 통한 편집교육
- 언론사 취업 적극 알선
-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라오스, 몽골 등)

모집대상 :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학부 신입생(13학번)

원서마감 : 4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방법 : 제주대신문 편집국 방문 또는 제주대미디어(news.jejunu.ac.kr) 공지사항 참조

기타서류 : 입사지원서와 함께 자기소개서 1부 제출

장소 :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편집국

문의 : 제주대신문(064-754-2277~9)

청춘 20대, 꿈을 꾸라



4·3문제 해결은 '국가추념일 지정'과 '특별법 개정' 부터

학술기고 4·3문제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과 과제



고 창 훈
행정학과 교수

했다.

2012년 12월 30일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의 국제저널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 (2권 1호)에 하와이 콜로퀴움에서 발표된 4·3 관련 영문 논문 등 3편을 게재함으로써 제주4·3 대량학살의 비극을 겪으면서 희생된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배상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Eric Yamamoto 교수는 "The United States' Role in the Korea Jeju April Third Tragedy and Its Responsibility for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라는 논문에서 제주4·3 사건이 미국의 평화시대 점령기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이므로 미국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입장을 제시 미국정부에 사과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백히 하였다. 이는 존 메릴 교수를 말해왔던 제주4·3을 좌익에 의한 반란이라는 입장을 정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3월 22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출범 20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4·3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과 과제의 기조 강연을 하였다. 올해가 제주 4·3 대량학살의 비극을 맞은 지 65주년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부가 민주통합당과 똑같이 완전한 4·3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그 결과 제주도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말한다. 도민들 다수가 이명박 정부가 4·3 외면과 억압의 5년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4·3 해결과 실천의 5년이 되리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완전한 4·3의 해결의 국내적 차원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 4·3은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는 공약부터 이행함으로써 새 정부가 완전한 4·3 해결의 시작을 해내야 한다고 본다. 지난 3개월 4·3 유가족 신고에 2만7천명이상의 희생자가 신고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으로 추념해야 할 역사적 의미를 내포한 사건임을 상기시킨다. 다음은 4·3 유가족에 대한 단계적 배상의 청사진과 대상 규모 기준을 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에 명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풀어야 한다.

제주대학교는 4·3의 국제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4·3진상규명에 참여하고 있다.

전남대는 5·18 연구소가 있어 5·18 민주 항쟁에 기여하였지만, 제주대에는 4·3관련 연구소가 없어 제주4·3의 진상규명이나 세계화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도민들이 아쉬워 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 평화연구소가 4·3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가 하면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가 4·3평화재단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주4·3사건진상 정부보고서(2003)의 영문번역 업무를 맡아 실행하고 있다.

2012년 11월 제주대와 하와이 로스쿨 제주 4·3 콜로퀴움에서 제주 4·3 사건을 "미군정 평화점령시대의 제주도민 대량학살 The Mass Killing of Korea's Jeju Islanders During US Peacetime Occupation"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정부가 존중하는 인권존중의 가치에 입각하여 냉전시대 제주에서 발생했던 미국정부에 의한 인권탄압의 사례인 제주4·3의 희생자들에 대해 미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사과와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



제주4·3유족회는 지난달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65주년 4·3위령제 참석을 요청했다.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에서 4·3 평화교육과 섬 평화교류 Jeju 4·3 Peace Education and Insular Cultures of Peace을 개설하고 6개의 현장학습을 실행함으로써 4·3 평화교육학과와 같은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기대한다.

필자는 4·3평화교육학과 설치가 가능한 "평화섬 대학원 Peace Island School" (도립)을 설립하여 제주4·3의 세계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화문제를 특성화시킨 평화섬 대학원 Peace Island School (PIS)으로서 지역균형 발전도 추구하는 차원이라면 서귀포시가 나서서

국제적인 수준의 도립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 (Jeju Peace Island Plan 2013-2016 : 2013.2.22)을 구체화 할 때이다.

그 규모 총 정원 80명(연 40명 모집과 20명의 국제교환학생 등 60명 단위로 운영)으로 하되 4개의 학과로 해양문화학과, Marine Culture, 4·3 평화교육과 섬 평화문화학과 April 3 Peace Education and Insular Culture of Peace, UNESCO 국제보호구역, 녹색성장과 트레일리즘이며, 명예총장 포함 40명의 국내외 교수진으로 2014년 7월 출범시키자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제안에 도민적 공감대가 조성된다면, 광역권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에 공모하여 지원을 요청해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신청에 맞추어 자체발전기금과 국제기금 투자금 및 국가사업의 지원 등을 통해 5년 500억 규모를 투자하여 서귀포시에 설립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제주4·3사건 독립영화 '지슬'과 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등재 4·3사건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길을 열다.

오늘 감독의 독립영화 '지슬'은 미군정 시대의 대량학살의 비극으로부터 인권존중 평화추구의 희망을 현장에서부터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아픔으로부터의 4·3의 완전한 공감"을 일으킨 놀라운 감동이라고 평가하였다. '지슬'의 문화적 성공은 "제주도 사람의 제주사람을 위한 제주4·3 이야기"로 세계인과 소통한 결과 세계인에

게 4·3의 감동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과를 계기로 4·3 특별법에 4·3문화예술의 4·3의 문화적 치유 기금으로 '4·3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를 명백히 하여 4·3문화예술가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는 4·3진상규명과정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기여와 참여의 결과이도 하지만 더욱 노력하여 4·3의 세계화로 승화시켜야 한다. 미술, 마당극, 사진, 영상 다큐멘터리, 노래 등의 분야에서 그간의 노력의 성과를 예술적 감동으로 일으키는 문화적 투자는 국가추념일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제주 4·3이 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한 5·18이나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이 있는 작은 섬 Robben Island을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검토도 시작되었다. 제주4·3에 관한 원본 기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을 검토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의 투옥 장소였던 Robben 아일랜드의 감옥소가 복원되어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이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주정공장 학살터나 담당 쉬굴의 현장 복원, 4·28 화평회담의 현장 복원 등과 백조일손지, 북촌리 학살현장 등의 유적지를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문제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4·3의 경우 2차 대전 직후의 냉전시대의 아시아 민중에 대한 인권탄압사례로서의 세계사적 의미가 있고 이를 극복하는 진상규명 과정 역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이를 종족적으로 균형있게 반영하여 제주4·3의 세계사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차원의 원칙이 세워지고 그를 속에서 4·3평화교육과 평화문화의 세계화 노력도 포함시키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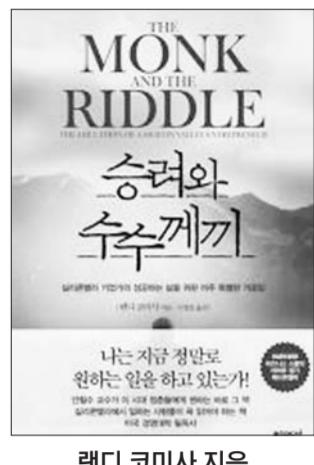
권하고 싶은 책

최악의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삶

'계란을 1미터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깨뜨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라고 미안한 승려가 묻는 수수께끼에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할 것인가요? 인생은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라는 수수께끼에 대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수많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실리콘밸리에서의 벤처창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답을 각자 찾아보도록 통찰력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레니'라는 젊은이가 대표적인 벤처투자가 한 사람으면서 동시에 실리콘밸리의 철학자로 불리는 '랜디 코미사'를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인터넷 장례사업(Funerals.com)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코미사를 찾아온 레니는 매우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설득하지만 코미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죠. 장례용품을 사야 장례식을 치를 수 있으니까 사업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 경향이 없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파는 기존 장례식장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 수 있는Funerals.com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꿈의 사업이죠.'라는 요지로 설득해 봅니다. 하지만 코미사는 오직 한 가지만을 목표로 돌진하는 레니의 모습을 보면서 소송에서 그냥 이기려고 했던 실리콘밸리의 젊은 변호사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리스트 (VC)들이 중요시하는 3가지 즉, 시장의 규모는 큰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었는가 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레니의 인터넷 장례사업 모델은 이들 VC의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벤처기업을 부화시키는 역할에 치중하는 코미사는 VC들과 다른 기준으로 레니의 Funerals.com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가 중요시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목적' 같은 것 말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여기에 쏟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그 어떤 것'이 있는지를 레니에게 물어보지만 그는 그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코미사는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돈을 버는 일이 아닌 창의력을 펼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통해



랜디 코미사 지음
『승려와 수수께끼』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거나 변화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레니에게 말해줍니다. 아직도 레니는 그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코미사가 던진 수수께끼를 풀만한 자신의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죠.

레니의 사업에 대해 코미사는 결국 관심을 갖게 됩니다. 'Funerals.com이 평생을 바쳐도 좋은 만 사업이 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갖춰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져 레니가 사업철학과 모델을 바꾸도록 유도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레니의 사업 파트너인 엘리슨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원래 꿈꿨던 사업 즉, 장례를 당해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는 커뮤니티 사업모델에 대해 관심과 지지의 표명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여건이 안 되니 먼저 해야 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코미사는 이런 마음가짐을 '미뤄진 인생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로 보람된 일을 찾아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려울까?'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욕과 열정을 흔들하지 마십시오. 의욕은 앞으로 떠밀려가는 걸 말합니다.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말입니다. 열정은 당신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본래의 자신과 맞아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느끼는 유대감 같은 겁니다. 열정을 갖고 있어야 어려운 시기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 책은 인절수 후보가 카이스트 교수시절 기업가정신을 강의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김정희
음악학부 교수

당신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획·디자인에서 인쇄까지 ONE-STOP 공정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최상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신우기획 / 도서출판 신우

상담전화 (064) 746-5030

- 제주시 오라3동 2988-4
- E-mail: sw5030@hanmail.net

‘지슬’·‘비념’ 영화에다 문화예술축전 등 4·3 문화행사 풍성

추위가 물러가고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4월, 1948년 제주의 4월은 봄향기가 아닌 피내음이 감돌았다. 이후에도 제주 사람들은 4·3의 아픔을 입밖으로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이제 우리는 4·3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올해는 좀 더 특별하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지슬’을 필두로 다큐멘터리 영화 ‘비념’, 문학콘서트, 제일제주인 사진전 등에 이르기까지, 4·3을 좀 더 문화예술적으로 풍성하게 다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4·3 관련 문화 콘텐츠들을 살펴보며, 현재 제주의 주역인 우리들이 앞으로 4·3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

» 4·3 앞두고 6만 관객 돌파한 ‘지슬’

시적 영상의 감동적인 진혼굿



제주 4·3은 다른 제주 출신 오멸 감독의 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2)는 4·3 당시의 비극과 그 속에서 도 순박함과 여유를 잊지 않았던 당시 제주 사람들의 모습을 흑백의 영상미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3월 1일 제주에서 먼저 개봉했으며 3월 21일 전국 개봉했다.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4관왕의 영예를 안았던 이 작품은 이어 지난 1월 26일 한국영화 최초로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최고작품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4·3 당시 가해국이었던 미국으로부터의 이 같은 수상은 제주 4·3문화예술계의 꽂북한 만한 성과다. 나아가 지난 3월 12일에는 프랑스 브로아시아국제영화제에서 장편영화 경쟁부문 대상에 해당하는 황금수레바퀴상을 수상하기도 해 계속해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극장가에서의 인기 또한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10일 만에 돌립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5만 관객을 돌파한 데 그치지 않고 다음날 1일에는 6만 관객을 돌파했다.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영화 ‘지슬’은 관객들로 하여금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영상미’, ‘눈물 날 거울조차 없는 감동’ 등의 다양한 찬사를 받아내고 있다.

영화는 신위·신묘·음복·소지의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당시의 참상을 하나의 제의로 묘사해 마치 4·3 영령들을 달래고 위무하는 진혼굿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담아내는 흑백의 영상미는 이러한 신묘하고 무속적인 분위기 형성에 일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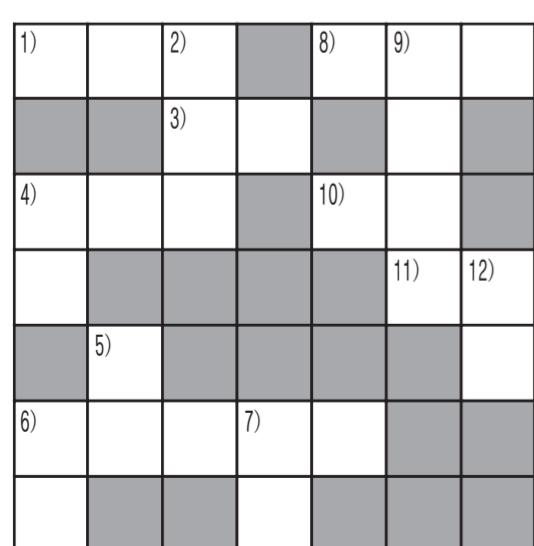
영화 제목 ‘지슬’은 제주도 방언으로 ‘감자’를 뜻한다. 제주 사람들의 양식이 서로를 이어주는 끈인 지슬은 장면마다 끊이지 않고 등장해 따뜻하고 소박한 제주 사람들 그 자체를 상징한다. 적대관계인 군인에게도 서슴없이 내어주고, 어머니는 불타는 집 속에서 타지 않도록 지켜내며, 아들은 그것을 가져다 눈물을 머금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련의 장면들과 함께 지슬은 그 송고한 가치를 더한다. 이렇듯 아픈 역사를 단지 아프게 만 그리지 않고 초월적 시각으로 풀어낸 영화 지슬은 4·3문화예술계에 길이 남을 작품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영화를 본 윤신혜(회계학과 2)씨는 “4·3의 아픈 역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해 낸 것이 놀라웠으며,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숙연해지는 기분이었다”며 “아직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라는 소감을 전했다.

제주어 날말맞추기



제주어 공부도 하고, 2만원 상품권도 받자!



소속·직위(학과·학년) :

이름: 연락처:

» 외지인의 시선으로 본 4·3 영화 ‘비념’

세상을 울릴 가장 아름다운 노래



또 하나의 4·3영화 ‘비념’은 4·3 당시 남편을 잃은 강상희 할머니의 개인사에서 출발한 다큐멘터리로, 4월 3일 제주에서 개봉한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의 토속적 색채를 강하게 지닌 오멸 감독과 달리 ‘비념’의 임홍순 감독은 제주에 별 다른 연고가 없는

서울 출신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비주얼 아티스트인 그는 2009년 제주도 여행 당시 동료였던 ‘비념’의 김민경 PD의 외할머니인 강상희(88)씨의 사연을 듣고서 4·3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으며 그 계기로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 바깥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본 제주도를 영화는 올려 코스를 따라 돌아다니며 담담하게 보여준다. 바깥 사람에게 관광지로만 인식돼 있는 제주도가 사실은 곳곳에 비극의 역사가 잔재하는 곳임을 보이는 것이다.

‘비념’은 제주 무속 세 가지 중 가장 간단하게 치러지는 곳으로 ‘비나리’라고도 한다. 끊임없이 기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중간중간 죽은 원혼을 달래고 평화를 기원하고자 곳을 하는 장면이 삽입돼 있다.

영화 ‘비념’은 죽은 자의 시선을 통해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강상희씨부터 시작해 곳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유령처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감독은 쓸쓸한 눈밭, 바람 부는 풍경, 샛노란 감귤밭, 곤충과 동물들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제주의 풍경을 담아내고자 한다. 개인의 아픔에서 출발한 4·3의 역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끝나지 않고 6년째 해군기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정마을의 사태를 통해 현대화된다. 4·3 때 군인들의 발포 소리와 함께 죽어나가던 민중들의 모습 직후, 지금 현재 겪은 연기와 함께 폭파되는 구름비의 모습이 나와 앞 장면과 연결된다.

임홍순 감독은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관객들에게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누구의 죽음이든 하찮지 않은 것은 없으며, 생명과 자연을 경시하는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념에 물든 사회 안에서 제주 자연이 지난 노란빛의 색채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며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제주 그 자체를 영화를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화를 본 강정마을 민경씨는 “지슬과 비념을 다 봤다. 4·3을 다른 영화들이 나온 자체에 감사한다”며 “‘비념’이라는 영화는 제주의 아픈 역사를 현재 시점의 제주와 연결시켜 잘 풀어낸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참신한 문화콘텐츠의 장, 4·3문화예술축전

4·3예술 20년, 역사를 기억하다



지난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열리는 4·3문화예술축전은 전년보다 참신한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4·3 속에 가미해 아름다운 예술로써 4·3의 역사를 보듬는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박경훈)의 4·3문화예술축전은 ‘제

산 위에, 아름다운 꽃그늘 아래 4·3예술 20년, 역사를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들을 내놓고 있다.

1일부터 10일까지 4·3문화공원 예술전시실에서 열리는 강정호 작가의 사진전 ‘60년만의 귀향’, 2박 3일의 기록은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고향을 떠나서도 4·3의 기억 속에 악동과 같은 세월을 보내야 했던 재일제주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지난 2008년 4·3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초청으로 도쿄, 오사카, 교토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과 일본인 등 140여명이 60년만에 제주를 찾아와 보낸 2박 3일의 짧은 여정을 작가는 밀착 취재해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2박 3일 동안 4·3문화공원 방문, 4·3전야제, 4·3위령제 참석, 제주시 조천읍 복촌리 방문, 4·3해원상생굿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오는 4월 5일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에서는 4·3과 함께 문인의 길을 걸어온 시인 김경훈의 ‘김경훈 4·3문화콘서트-병어리 사만이의 언어들’이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린다. 오랫동안 제주 4·3을 시와 마당극으로 형상화해온 김경훈 작가의 이번 문학 콘서트는 말 그대로 시와 노래, 연기가 어우러지는 종합극적인 형식을 취한다. 작가의 작품을 노래로 만들어 노래가 들려주기도 하고, 동료 배우들이 나와 아픈 상황을 연기로 상황 연기로 보여준다.

또한 ‘성산 일출봉에서’, ‘저기 어둠 속에’ 등의 작품은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연기로 보여주기도 한다. 작가의 입을 통해, 작품을 통해 그는 ‘병어리 사만이’의 말 못할 사연을 전한다. 병어리로 강요받으며 살아온 지난 인생과 현재의 여러 4·3남본들을 풀어낸다. 더 나아가 제주 4·3문화예술의 반성과 미래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어진다.

이밖에도 4·3문화예술축전을 대표하는 거리극 ‘역사와 동행하다’가 지난 2일 5시부터 제주시청 마당에서 열렸다. 이밖에도 4·3의 넓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4월부터 5월동안 선보여진다. 행사 문의는 제주민예총(064-758-0331)으로 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가로 영식

- 제주 4·3사진 즈음에 피는 꽃나무 이름이다. 이 꽃의 꽃은 절 때 통꽃으로 똑똑 떨어져서 4·3 때 읊울하게 죽은 영령들을 비유하기도 하는데 나무의 제주어 이름은 ‘○○○’이다.
- ‘부제’를 제주어에서는 ‘○○’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한자어 이름을 따서 ‘선제’ 또는 ‘미선’이라고 한다.
- 거울결 불을 빨 솔잎을 꽂아모을 때 쓰는 도구다. 표준어 ‘끌퀴’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 ‘말’을 전한 사람과 원래 이야기한 사람을 대면서까지 그 말들을 서로 하고 얻 했을 때 대이보는 일’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 ‘신 듯한 밥에 누룩을 넣어서 밭사진 음료’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순○○’라고 한다.
- 제주에서는 예전에 이것으로 젖장을 땀이 달고 막았다. 이것을 이용한 조리법이 다양하게 별달에 있는데, 예전부터 제주시 북촌리, 대정읍 지역, 서귀포시 보목동에서 이것이 많이 막아 접한다. 이것으로 맨든 물회는 제주 지역의 어려울 떄에 가운데 아니다.
- ‘밥에 한근대 어여기 종종이 모여서 반짝이는 별’을 알컫는 제주어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이 별자리의 위기에 따라 시각을 짐작했다고 한다.

세로 영식

- 표준어 ‘양분’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예전에, 한문을 사자로 이기르기로 굳을 말한다. 표준어 ‘글방’ 또는 ‘서당’에 해당하는 것이다.
- ‘문의 입구’라는 의미의 제주어이다. 이곳에 서면 ‘○○에 사자 빌라’고 한다. ‘별의 입구’는 ‘벗○’라고 한다.
- 표준어 ‘술’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이것을 넣어서 맨든 옷을 ‘○○ 웃’이라고 하고, 이것을 넣어 맨든 이불은 ‘○○이불’이라고 한다.
- ‘서로 등등한 애를 끌어야 하는 절’로, 대개 결혼식장에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
- ‘금이 물어선 다’는 의미의 제주어다. 빨리기 위해 널어놓은 곡식에 새가 날아들면 “지 생이 ○○○○.”처럼 말한다.
- 표준어 ‘미루’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강연초록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 - 변양균 박사

공정거래 해치는 재벌 개혁이 중요

변양균 한국경제학회 이사(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연이 지난달 28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은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의 주최로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다. 다음은 강연 요약.

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는 각 세대가 성장해온 배경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세대간 차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의 경우 그 차이의 정도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아예 생각의 바탕이 다르기까지 하다.

우리나라는 30년 사이에 급격한 경제성장이 일어났다. 1960년대 후반만 해도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업사회를 넘어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3대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재벌개혁, 성장개혁, 노동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재벌개혁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제용어중에 자랑스럽게도 한국어가 있다. 바로 ‘재벌(chaebol)’이다. 독점적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동업집단내의 기업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벌은 카르텔(cartel)과 같은 단어와 구별된다.

재벌 개혁, 실천밖에 다른 길 없다

빈곤성장에서 복지성장으로 패러다임 변화

노동자 생활·고용안정 보장해야



변양균(한국경제학회) 이사

지난 대선부터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재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로서 대기업의 폐해를 논하고 있다. 경쟁적 시장 질서를 형성토록 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의 폐해와 재벌의 폐해를 구분하지 못한 대로 비롯된 혼동이다.

재벌의 폐해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헌법 제11조 2항의 ‘특수계급 인정, 창설 금지’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을 보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

태도로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재벌의 문제점은 부와 권력이 불법·편법으로 세습된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법 강화, 순환출자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재벌개혁은 우리나라 역사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 외에도 성장개혁이 있다. 빈곤층이 늘어나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성장과 일자리를 수반하지 않는 성장은 이제 곤란하다. 이제는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제 경제 운용의 목표를 빈곤성장에서 복지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은 결코 성장이 아니다. 성장은 필요조건일지도 모르겠다. 성장을 위해 경쟁은 필요하다. 다만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시장소득의 격차도 인정해야 한다. 가치분 소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 노동개혁이다. 정부는 노동력을 단기간에 소모하도록 하는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생애 총 노동시간이 길어지도록 모든 분야에서 디자인할 때이다. 국민들의 생애소득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때 노동의 유연성을 높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성이란 고용주의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가 기업주에게 목을 매이지 않도록 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정리=김명지 기자

교육역량강화사업 안내

1. 창업사업화지원 ‘창업 아이템’ 모집

- 최대 5천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70% 이내) 내에서 시제품 제작, 기술정보 활동비, 마케팅비 등 창업준비 지원
- 지원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의 대표자
- *기업의 대표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자
- 신청기간: 4월 17일까지
- 신청방법: 창업넷 온라인 접수 (<http://startbiz.changupnet.go.kr>)
- 문의: 창업지원단(754-2066)

2. 2013학년도 2학기 필리핀 자매 교류수학

- 지원자격: 학점 2.7점 이상
- 파견 종료후 우리대학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할 잔여학기가 있는 학부 재학생
- 같은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경력이 없는 자
- 토의 500점 이상 소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소지자 가기 전, 후 영어성적 제출
- 모집기간: 5월 6월 공고
- 문의: 국제교류본부(754-2197)

3. 일본 인턴십 설명회 개최 및 연수생 모집

- 일시: 4월 9일 오후 4시~6시
- 장소: 취업전략본부 흠품페이지 신청
- 내용: 유급/무급 인턴십 설명, 비자발급 안내, 개인 상담, 신청서 접수 등

교수시론

아싸라비아(Assarabia)!? 아싸비야(Assabiya)!!

김 부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싸라비아’에는 아라비아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의미 없어…

‘아싸비야’로 바꾼다면 싸이가

아라비아인들로부터 감사와 칭송의
대상으로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

14세기 아라비아의 역사가인 이븐 할둔(Ibn khaldun)은 1375년부터 1379년까지 『성찰의 책』(Kitab al-Ibar)으로 악장되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역사서를 집필하였다. 그 제1부는 문명과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으며, 『성찰의 책』 전체의 ‘서문’과 ‘서론’ 그리고 제1부를 합쳐서 『무갓디마』(Muqaddimah) 또는 『서설』(Prolegomena)이라고 부른다.

20세기의 위대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역사의 연구』(Study of History)에서 이 책에 대하여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이 만든 역사 철학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무갓디마』에서 이븐 할둔은 인간사회의 흐름에도 자연법칙과 비슷하게 일정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몰락에는 그 사회구성원들을 공동의 목표 아래 결집시킬 수 있는 ‘집단의식’(group feeling or consciousness) 또는 ‘연대감’(solidarity)이 결정적 역할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의식’ 또는 ‘연대감’을 아라비아어 밸로음으로 ‘아싸비야’라고 하며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asabiyyah’ 또는 ‘assabiya’가 된다.

이번 할둔에 따르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 문

명은 고양된 ‘아싸비야’를 바탕으로 융성하고 발전하지만 ‘아싸비야’가 해이해지면 쇠퇴되며 접어든다는 것이다. 그의 역사관은 시대적·공간적 배경으로 중세까지의 아랍 문명권에 대한 성찰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한 때 유라시아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의 역사는 물론 20세기 싱가포르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보편적인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여 년 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관련 학자들이 16세기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인 미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가 『군주론』(Il principe)에서 지도자의 성공과 관련하여 ‘포르투나’(fortuna), ‘비르투’(virtu) 그리고 ‘네체시타’(necessita) 등 세 가지 요소를 거론한 것을 언급하면서, 싱가포르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운수(運數)와 연결되는 ‘포르투나’의 요소가 매우 열악했지만 지도자(李光耀)가 탁월한 시대 정신(‘네체시타’)과 역량(‘비르투’)을 통해서 싱가포르인들의 ‘아싸비야’를 획기적으로 고양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서로 힘을 모아 무슨 일을 도모하거나 집단의 결속이 필요한 경우, 또는 뜻한 바가 성공적으로 이

루어졌을 때 ‘아싸비야’, ‘아싸비야(assabiya)’ 또는 ‘아싸라비아(assarabia)’라고 외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실 ‘흥’이나 ‘신바람’ 때문에 외치는 이러한 소리가 이븐 할둔이 『무갓디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싸비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고 필자는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 가수 싸이(Psy)가 전공의 세계적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의 후속곡 제목으로 ‘아싸라비야’를 채택하자, 이 단어가 ‘ass’와 ‘arabia’(Arabia)가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라비아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나 비하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우리말 ‘아싸라비야’에 아라비아에 대한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아싸라비야’의 영어 표기인 ‘assarabia’가 만에 하나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면 이를 흔히 함께 사용하는 ‘assabiya’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 노래는 아라비아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위대한 역사서인 『무갓디마』의 핵심이인 ‘아싸비야’를 한국인 가수 싸이가 대신 흥보해 주는 셈이 될 것이다. 아라비아 인들로부터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칭송의 대상으로 반전(反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동문칼럼

철저한 준비만이 한계 넘을 수 있어

강 문종
국어국문학과 93학번
한국학중장연구소
선임연구원

캠퍼스가 활기로 채워지던 어느날 제주대신문 기자가 동문칼럼을 의뢰했다. 앤서 호네트의 ‘인정투쟁’을 떠올리고는 내 고양의 밀밭을 드러내면서 후배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 본다. 나는 고전문학 전공의 인문학 자를 꿈꾸고 있다. 아직은 형편없지만 13년을 노력하였고 10년을 더 준비하고 있다. “2010년대 젊은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직무유기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주제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 물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둘’처럼 빼-언한 이야기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고 하는 선문답을 통하여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기는 쉽다. ‘상식+구라’

세상에 나가기 위해 오리가 되려 하지 말자! 모 방송에서 김난도 교수가 한 이야기다. 세상은 스페 쌩기는 이름으로 청춘을 오리로 키운다. 오리는 육지에서 뛰뚱뛰뚱 걸으며 뛸 줄도 알고, 수영과 잠수도 잘 할 뿐만 아니라 적당히 페더거릴 줄도 안다. 육·해·공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완벽한 스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세분화된 분야에서 전문가를 원한다. 힘차게 날아올라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를 찾고 싶은데, 오리가 와서 “저는 날 수도 있고, 독수리가 하지 못하는 수영과 잠수는 물론 달리기도 할 줄 알아요!”라고 아무리 꽉꽉거려봐야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하자! 인간의 능력과 기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기도 하지만,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서로 달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말한다.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가능하다. 물려받을 재산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한다. 때문에 피에르 부르디외가 지적했듯이 계급에 따라 문화자본의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공허한 담론에서 벗어나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안철수 등. 우리는 매체에 부각되는 각 분야의 최고를 모델로 정한 후 나도 최선을 다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고가 아닌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며, 그 존재 가치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미를 깎아내린다. 이러한 생각이 자기 자신을 향했을 때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피곤한 일이다. 주변의 담론이나 사회가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치 주체적 자아의 선택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모두 최고가 될 수 있다면 ‘최고’라는 단어는 불필요하다. 각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름의 성과를 얻어 행복을 느끼고, 의미를 찾았을 때 그 결과물이 최고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것임에 틀림없다. 아스팔트에 듣아난 잡초조차도 그 자리에서 자라야만 하는 이유와 의미가 있듯이…

한 방에 나를 성장시키자! 인생의 로또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철저하게 준비한 후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자본의 한계를 단기간에 넘으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A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잘 할 수 있으므로 서양화가가 꿈이다. 그런데 주변에 A에게 도움을 줄 화가는 없고, 유명한 학원을 다니거나 전문가의 레슨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다. 모양과 색을 재구성할 수는 있으나 화가가 가진 개성과 미감을 얻는 것은 정말 힘들다.

A는 준비가 필요하다. 『서양미술사』를 구입하여 정독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고, 주변 사람에게 최대한의 대출 받고, 신문사나 잡지사에 스폰서를 신청한다. 그리고 떠나라! 프랑스 파리 중심가 1구역 루브르 박물관으로! 머물 수 있을 만큼 머물면서 매일 박물관에 들어가 느끼고, 감상하고, 기록하고……! 회화에 대한 돈오(頓悟)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절난 척 해 봤다. 구리를 더 치고도 싶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글자가 이미 지면을 덮었다. 다음은 기억하자. 경제력이 부족해서 슬프고, 꿈과 희망이 안개 속이어서 더 슬프고, 함께 가보자 하는 사람 없어 더욱 슬프고, 삶의 지표로서의 시대정신이 없어 더욱 더 슬프다! 그러나 각자는 평화로운 삶을 반드시 깨우고야 마는 그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찾기 바란다. 그리고 실천하기를 더욱 더 바란다.

돌하르방

제주의 역사와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무관심을 깨자



김명지 편집국장

올해로 4·3이 65주년을 맞았다. 제주 사회 각계각층에서 4·3을 추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고 있어 4·3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대학도 총학 생회를 비롯해 중앙 자치기구와 단과대학 학생기구 간부들이 지난달 29일 4·3 65주년을 앞두고 유적지 순례 행사를 진행했다. 전·현직 학생자치기구는 ‘제주지역 사회의 지을 수 없는 상처이자 풀어야 할 지역사회문제’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이러한 활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학생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인들이 4·3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대학 학생회가 4·3을 추념행사를 좀 더 활동적으로 해주길 기대해본다. 사회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매년마다 학생회가 4·3 유적지 탐방 등을 기획하고 있지만 행사가 진부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회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신선한 행사를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4·3을 기억하는 행사를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일부 대학인들도 동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자 제주대신문 독자기고에서 한

학생들은 “4·3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었다.

최근 들어 4·3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에 대해 혹자들은 “개인주의의, 취업문제 등으로 우리나라 대학사회가 탈(脫)정치화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단순한 피교육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성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해야 할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가 4·3 추념행사를 좀 더 활동적으로 해주길 기대해본다. 사회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매년마다 학생회가 4·3 유적지 탐방 등을 기획하고 있지만 행사가 진부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회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신선한 행사를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4·3을 기억하는 행사를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실 1952년에 문을 연 우리대학은 정부에

의한 4·3 탄압기와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에 학생들이 4·3 진상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4·3 유가족들의 집회 등의 활동과 함께했다고 한다. 또 1991년에는 학생회가 ‘4·3자주항쟁 계승과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청년아라 절기대회’ 등을 열었다. 이 때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 많은 학생들이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는 제주사회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명예회복 운동에 많은 협력소가 됐다는 평가이다.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4·3에 대해 공식사과를 한마당에, 예전처럼 4·3 관련 시위를 하라는 것이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정부의 공식사과는 있었지만 4·3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지역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은 많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 사회에 남아있는 4·3에 대한 그릇된 인식 바로잡기이다.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살해한 명백한 국가살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엔 아직 4·3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남아있다. 일부

에서는 아직도 4·3을 두고 ‘레닌 기념일’, ‘좌익용공들의 폭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4·3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다.

이제 제주대 학생사회도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나가는 데 한몫을 해야 한다. 캠퍼스 내에서 4·3주간 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열어 대학생들은 물론 중·고등학생,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우리 대학은 제주의 유일한 거점국립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제주대 학생자치기구의 임무는 학생들의 복지증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주대 학생사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변혁의 목소리는 사실 대학에서 나왔다. 더 나아가 4·3뿐만 아니라 강경마을 해군 기지 건설논란, 제주도 환경문제 등에 제주의 지성인 집단으로서 더욱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본다.

독자기고

북한 핵위협과 우리의 자세

현규리
정치외교학과 2

최근 북한의 핵 도발 위협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정전협정 백지화, 서울 불바다와 같은 입에 담기에도 무서운 도발을 하더니 지난 2월에는 다른 모든 국가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핵실험과 동시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향해 수위 높은 도발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남북한은 한민족이라는 부르기에도 민망한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제서 자국민의 굴주림도 외면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면서 핵에 집착하는 것일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비정상적인 체제를 가진, 자신들만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핵 개발에 따른 위협, 그에 따른 타 국가들의 긴장과 조화 효과는 이미 입증돼 있다.

핵 이외에 별다른 위협수단을 지니지 못한 북한은 더욱 더 핵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잃은 것이 많아진 우리나라를 나 죽고 나 죽자 같은 식의 도발에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니 북한은 점점 핵에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북한의 핵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겐 잃을 것이 너무 많다

한석희 / 생활환경복지학부 1

고등학생때에는 대학생이 되면 자유롭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순간에 돌아보니 전보다는 자유롭지만 내 스스로의 책임감에 더욱 더 부담이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와 달리 전을 찾을 때면 사람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걸 느꼈다.

조별 활동 수업을 하면서 각자의 조별과제가 있는 이유가 협동과 배려해야 결과가 좋다는 걸 느꼈다. 나하나 편하게하고 그 수업에 빠져버리면 같은 조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선불리 수업을 빠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다. 또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다.

나는 앱티를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여러번 보도됐지만, 술을 너무 마셔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앱티는 단지 술만 계속 먹이는 것인줄 알았다. 하지만 건전하게 조별로 게임도 재밌게 하고 술자리에서 선배들이 술 못 마시는 애들을 배려해주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자비하게 마시게 할 줄 알았는데 미리 전에 못마시는 애들은 미리 말하고 배려 해주는 것은 고맙게 느껴졌다. 앱티는 선배와 동기들 간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속한 학과만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과 선배들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친절하고 좋았던 것 같다.

앞으로 기대되는 점은 내가 수업을 들어가면서 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찾길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한 나로써는 대학을 다니는 이유가 물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하고 미리 사회에 적응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내가 생활환경복지학과라는 곳을 온 이유는 내가 우리 학과에 적성과 흥미가 있어서다. 서기보다는 내 성적으로 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니 내 진로를 위해서 온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주거복지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 우리 학과에 온 것이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대학생활을 해면서 내 스스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걱정도 된다. 하지만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배들과 같이 지내면서 고등학교 때 보다 훨씬 재밌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정말 어른이 돼서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 출구전략(exit strategy)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본래 군사 분야에서 주로 쓰이던 용어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인력이나 장비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대를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 국방부 실무 부서에서 ‘출구전략’이란 용어를 썼던 데서 비롯됐다. 이후 출구전략은 주로 경제학 용어로 바뀌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취

